

여수시, '편하게 식사하세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큰 호응



올해 음식점 27개소 입식테이블 총 298세트 교체 업소 당 보조금도 기존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

여수시가 선진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음식점 27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총 298세트(의자 포함)를 교

체했다. 업소 당 지원하는 보조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해 교체비용의 50%는 보조금(총 4,500만 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영업주가 부담했다.

좌식 식사문화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입식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의 생활패턴과도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관내 음식점 262개소의 입식테이블 2,880세트를 교체 지원(보조금 2억 7천만 원)했다. 시에서는 음식점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높아 외식환경 개선

을 위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시작해 많은 음식점에서 교체를 완료했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을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도시지역 음식점 입식테이블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전라남도 복지기동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2년 197건의 다양한 생활 불편 해결 '우리동네 해결사'



보성군은 지난 6일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2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실적, 민관협력 및 위기가구 발굴실적 등 우수사례 및 4개 항목 14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보성군은 12개 읍면에서 총 196명의 복지기동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전기 가스 수도 주택 설비 전문가 등 읍면별 10~15명의 봉사자들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성군 복지기동대는 2022년 한 해 동안 197건의 다양한 복지기동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평가의 우수성 성과를 토대로 복지 인적 안정망 활성화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기동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전등 교체나 전자제품 오작동 수리 등의 단순한 생활 불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보성=김명숙기자

순천시, 시민 참여로 죽도봉공원을 여성친화공원으로 가꾸

여성친화시민참여단과 함께 죽도봉공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순천시는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여성친화시민참여단과 조곡동(정년회, 부인회), 여성장애인연대와 협업해 '썩썩썩

세대공감 여성친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인 '죽도봉공원 되살리기'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추진됐다.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버무린 김장김치 20포기를 조곡동 마중물 냉장고에 기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 장바구니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작은 화분 나눔으로 진행됐다.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은 시민들의 옛 추억이 깃든 죽도봉공원이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주기적으로 공원 시설물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연자무를 청소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앞으로는 공원 입구에 여성친화 관련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애임 여성친화시민참여단 회장은 "회원들이 한뜻으로 죽도봉공원이 활기차고 시민의 휴식처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내년에도 회원들과 함께 안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되어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의 균형,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 성료

광양시가 지난 3~4일(이틀간) 성황스포츠클터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어린이와 학부모 650여 명이 참여한 '안전체험 한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놀이와 체험 부스를 이용해 ▲화재 안전(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미로 탈출, 비상탈출 완강기)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생활안전(자전거, 물놀이, 지진, 미세먼지 등 VR 체험) ▲항공 안전(비행기 탈출) 등 4개 분야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체험교육 후에는 안전상식을 익히기 위한

'안전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행사는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특히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생존역량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심폐소생술 체험, 완강기 탈출 체험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문화 의식 향상과 각종 재난 예방을 통해 안전한 광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남포미술관 분청사기 협업 기획전시 개최

현대분청사기 20여 점 전시, 고흥 공예문화 확대의 첫 장 열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영남면 남포미술관에서 '현대 분청사기'를 주제로 협업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공예문화 확대를 위해 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남포미술관(관장 곽형수)과 협업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시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지역의 공예문화 발

전 방향과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분청사기의 선율'이라는 주제로 분청문화박물관 입주작가인 김설화, 윤준호, 박정민 등 3명은 고흥 두원면 운대리에 분포한 혼합토를 이용해 분청사기의 매력을 각자의 작품에 담아냈으며, 이번 전시기간 남포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은 현대적 분청사기에 대한 해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설화 작가는 고흥의 대표적인 설화인 '용추와 용바위' 전설을 전통적인 조화기법으로, 윤준호 작가는 '내가 살고 있는 삶 + 고흥'이란 주제로 고흥의 자연과 풍경을 박지기법으로, 박정민 작가는 점토가 지닌 특성과 리듬을 반복적인 행위로 잘 표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